

국힘 “한일회담, 국조 대상 아냐”

민주 국조요구서 본회의 보고...김기현 “외교 트집잡기 의도”

국민의힘은 30일 야당의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정상외교는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몰타기용으로 4월 임시 국회를 외교 트집잡기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라면서 “민주당 상임고문 출신인 정대철 신임 헌정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자기 당 원로 고인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상외교는 대통령의 통치권한 중 하나로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가 없다”며 “집권까지 했던 야당이 이런 국정조사 요구서

를 제출했다는 것 자체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은 심각하게 손상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방탄 목적 정쟁 유발과 국민 반일 정서 자극을 통한 정치적 이익 획득 목적의 치졸한 입법권 남용 행위”라면서 “국가 영속성과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국익과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에 대한 몰염치한 반대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국정조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남긴 지난 정권의 남북 정상회담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욕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기현 “외교 트집잡기 의도”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방탄 목적 정쟁 유발과 국민 반일 정서 자극을 통한 정치적 이익 획득 목적의 치졸한 입법권 남용 행위”라면서 “국가 영속성과 국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국익과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에 대한 몰염치한 반대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지금 당장 해야 할 국정조사는 대한민국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남긴 지난 정권의 남북 정상회담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욕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 “후쿠시마 수산물 절대 불가”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해양수산물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석발식을 마친 뒤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블랙핑크 때문에 안보실장 경질? 전 세계 웃음거리”

민주 “안보실 언제부터 이렇게 허접했나...방미 앞 엄청난 외교 결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된 것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향해 집중 공세를 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실장이 그간 열거할 수 없는 외교 참사에도 끄떡없더니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갑자기 경질된 게 이상하다”며 “증폭되는 국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은 명백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다음 달 있을 (윤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밤새워 전략을 짜도 모자랄 대통령실이 대책은 고사하고 온갖 풍문의 진원지가 되고 있

다”면서 “언제부터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이 이처럼 허접한 곳 됐느냐”고 비판했다.

이장섭 의원은 회의에서 “권력 암투설 등 여러 의혹이 난무하지만,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외교·안보 라인에 번지는 불안 기류가 대미 외교 참사를 예고하는 전조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김 전 실장이 사실상 경질된 배경으로 대통령실과 외교라인의 불화를 꼽으며 “윤 대통령은 무엇이든 이유를 만들어 기소해버리는 검찰 스타일”이라며 “별써 외교부 라인에 몇 명

이 나간 것이다. 아니다 싶으면 그냥 잘라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김태호 안보실 1차장과의 알력 다툼으로 쫓겨 나간 것인데, 그것은 위계질서가 엉망인 조직이라는 얘기”라고도 했다.

우상호 의원은 라디오에 나와 “(김 실장 사퇴는) 김태호 1차장과의 알력 다툼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라며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합동공연 보고 누락) 때문에 한 나라의 안보실장을 교체했다? 이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안보실장을 주미대사로 교체한 것이 말이 되느냐. (미국에 대한) 엄청난 외교적 결례”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법사위 상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특검법은 정의당 강은미·더불어민주당 진성준·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한 3건이다.

법사위는 여야 의원들의 대체토론 후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는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인데, 자신 관련 사건의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실상 핵심 피해자가 특검을 추천하고 임명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이른바 ‘이재명 셀프 특검법’은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수 의원은 “민주당에서 법사위의 특검법 상정이 본회의에서의 패스트트랙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하는데, 이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원래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이고 패스트트랙하겠다는 것이 꼼수”라고 비판했다.

전주혜 의원은 “50억 클럽 수사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생긴 것은 광상도 전 의원 1심 무죄 이후”라며 “하지만 정작 광 전 의원에 대한 추가 기소는 어려운 상황이라 특검에서 제외돼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서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검찰이 이날 박영수 전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 대해 압수수색을 발의한 점을 언급, “공교롭게도 국회에서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에 합의한 바로 다음 날 바로 검찰이 강제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며 “특검이 움직이니 검찰이 춤을 춘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마찬가지로.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적 관심사인 김 여사의 특검 수사도 진행돼야 한다”며 “50억 클럽 특검법 역시 아무리 늦어도 오는 4월 10일을 넘겨선 안 된다”고 했다.

김의겸 의원은 “중앙지검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독하고 집요하게 끝까지 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소프트하게 수사를 해왔다”며 “김만배 씨의 동결된 자산 2천억원 가운데 윤 대통령 부친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것도 포함돼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별 자산까지 장관이 어떻게 파악하겠나. 일단 부동산 업계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알지 않나”라고 꼬집은 뒤 “김만배 누나가 한 거라는 당시 시기에 부합한 부동산 거래여서 야당에서도 의혹 제기 끝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납품가 제값 받기 ‘하도급법’ 본회의 통과

원재료 값 변동분 대금에 자동 반영 하도급 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공청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납품대가 연동제 관련 법안 중 하나인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을 하도급 대금에 연동하도록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동 대상인 주요 원재료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법과 함께 ‘납품대가 연동제’ 패키지 법안 중 하나인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여수항 관광거점 육성, 국가계획 반영 가능성”

주철현 의원 “개항 100주년 축하”

30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은 “오는 4월 1일 여수항이 포구의 문을 연지 100주년을 축하하고, 세계대표 해양관광거점으로 도약할 여수항의 새로운 100년 신해양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여수 지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그간 소관 부처인 해수부에 여수항이 국가관리무역항으로 불리면서도 오랜 시간 개발에 소외되고 시설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항만으로서 기능이 떨어지고 발전동력이 상실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를 통해 여수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여수항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기 위해 해양수

산부와 공급대를 형성하며, 여수항을 남해안 관광거점을 연계한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육성하는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며 “여수항 발전을 위해 해수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정부예산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역비 4억원을 확보해 여수항의 새로운 100년 미래비전 밑그림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주 의원은 “여수항 종합발전계획에 담긴 ‘해양 관광복합항만’이라는 컨셉이 제4차 국가항만기본계획에서 여수항을 ‘남해안 관광거점을 연계한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육성한다’는 기조와 일치하는 만큼 국가계획 반영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산부와 공급대를 형성하며, 여수항을 남해안 관광거점을 연계한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육성하는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며 “여수항 발전을 위해 해수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2021년도 정부예산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역비 4억원을 확보해 여수항의 새로운 100년 미래비전 밑그림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광주광역시 공고 제 2023-678 호, 전라남도 공고 제 2023-398 호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시·도 통합 주민공청회 개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안)」에 대하여 주민, 전문가 및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2023. 3. 31.
광주광역시·전라남도지사

1. 개최목적 :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안)」에 대한 의견청취
2. 일시 / 장소 : 2023. 4. 14.(금), 14:00 ~ 16:00
광주전남연구원 8층 상생마루
※ 광주전남연구원: 전라남도 나주시 우정로 56, 토담리치타워 (빛가람동)
3. 주요내용 :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안)」 설명 및 질의·응답
 -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목표, 전략, 미래비전 및 핵심과제 도출
 - 광주권 공간구조 구상, 부문별 전략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방안 마련
4. 기타사항 : 의견제출 등
 - 「2040 광주권 광역도시계획 (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참석 후 제출 혹은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E-mail(mistburn@korea.kr, wsb6442@korea.kr) 제출
 - 기타문의
 - 광주광역시 도시공간구조 도시계획과 류주석 (☎ 062-613-4422)
 - 전라남도 건설교통국 지역계획과 원성복 (☎ 061-286-7346)

제 3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과 목	금 액	
자 산		819,773,855,496
I. 유동자산		
1. 현금 및 현금성 자산	68,264,373,565	
2. 채고자산	732,734,402,516	
3. 기타채권	10,000	
4. 기타유동자산	18,773,259,645	
5. 당기법인세자산	1,809,770	
II. 비유동자산		22,949,870,000
1. 기타금융자산	22,949,870,000	
자 산 총 계		842,723,725,496
부 채		
I. 유동부채		13,496,695,364
1. 기타채무	13,496,695,364	
II. 비유동부채		824,988,043,611
1. 장기차입금	824,988,043,611	
부 채 총 계		838,484,738,975
자 본		
I. 자본금		5,000,000,000
1. 보통주자본금	4,750,000,000	
2. 우선주자본금	250,000,000	
II. 결손금		(-761,013,479)
1. 미처리결손금	(-761,013,479)	
(당기순손실)		
당기 : △480,141,003원		
자 본 총 계		4,238,986,52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842,723,725,496

위와 같이 공고함.

2023년 3월 31일
주식회사 휴먼스플로잉스제1차피에프브이 대표이사 소경광

감사 의견: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3기 재무제표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대표이사 유은수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